오늘의 날씨와 생활

11월 9일 월요일 음 10월 1일 (8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70%	제 주	70%
70%	성 산	70%
70%	고 산	70%
70%	서귀포	7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10/17℃
모레	구름많음	9/18℃

흐리고 비

제주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15℃, 낮 최고기온은 17~18℃로 예상된다. 오후부터 강풍과 풍랑에 유의해야겠다.

해뜸 06:59 해짐 17:36		달뜸 06:50 달짐 17:12	
물때	만조 10:48 22:20		간조 04:27 17:14

자외선지수 낮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이스라엘 야당 아이젠코트, 연립정부 구성 첫 기회

대통령, 연정 구성권 부여 결정


이스라엘 야권 지도자 가디 아이젠코트. 연합뉴스

이스라엘 야당 야샤르당 대표 가디 아이젠코트에게 연립정부 구성권이 부여됐다고 A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즈하크 헤르초그 대통령은 7일 아이젠코트에게 연정 구성 우선권을 부여했다. 아이젠코트는 "지금은 국가 비상정부를 구성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28일 안에 정책과 각료 배분에 합의해 연정을 구성해야 하며 대통령은 14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총선에서 네타냐후 진영은 53석, 아이젠코트 야권은 48석으로 모두 과반인 61석 확보에 실패했다. 아랍계 정당 2곳이 역대 최다인 19석을 확보하고 아이젠코트를 지지하면서 야권으로 주도권이 넘어갔다. 다만 지지가 연정 참여나 신임투표 찬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아이젠코트는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규정하는 조건 등으로 아랍계 정당과 협력할 의향을 내비쳤다. 네타냐후 총리는 아랍계 정당과의 연정을 반대했다.

연정에 실패하면 타 의원에게 구성권이 넘어가며 의회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끝내 연정이 구성되지 않으면 의회가 해산되고 재선거를 치른다. 그때까지 네타냐후가 재임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hl@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백록담



위 영 석
뉴미디어담당 부국장

제주~칭다오 항로가 남긴 혈세의 무게

제주특별자치도가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야심 차게 출범시켰던 제주~칭다오 정기 화물선 항로가 취항 1년 만에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국제 항로의 돛은 펼쳐지기도 전에 '물동량 예측 실패'와 '막대한 재정 적자'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더욱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투자심사 등 필수적인 행정 절차를 건너뛴 사실까지 드러나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비즈니스의 실패를 넘어 제주 도정의 신뢰도를 뒤흔드는 대형 정책 참사로 비화됐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상식을 벗어난 부실한 수요 예측이다. 지난 2025년 10월 첫 취항 이후, 이 항로를 이용한 화물 실적은 항차당 평균 26 TEU에 그쳤다. 텅 빈 화물선이 바다를 오가는 동안, 그 적자는 고스란히 도민의 혈세로 채워졌다. 취항 후 1년여간 지급되거나 지급돼야 할 손실보전금만 무려 76억 원이 넘는다. 전형적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행정이다. 제주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출·입 수요와 항로의 경제성을 냉정하게 따져보지 않은 채, 치적 쌓기용으로 사업을 서둘러 밀어붙인 결과가 도민 사회의 무거운 재정 부담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행정 절차가 철저히 무시됐다는 점이다. 지방재정법상 수백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민간 지원 사업은 자치법규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투자심사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담보할 제도적 절차가 마비된 채 특정 부서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사업이 강행된 셈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같은 위법·부당성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도지사의 공식 사과까지 나왔지만, 이미 실추된 행정 신뢰와 낭비된 예산은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

불행 중 다행으로, 위성곤 도정은 선사 측과 '2년간 총 지원금 100억 원 미만'이라는 새로운 협약안을 도출하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재정 투입의 상한선을 두고 운영 실적을 엄격히 점검하겠다는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임시방편식 협약 변경만으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없다. 이제는 퍼주기식 재정 투입을 멈추고, 이 항로가 실제로 자생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옥석을 가려야 할 때다. 농수축산물 등 제주의 주력 생산품이 칭다오 항로를 통해 중국과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물류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정책 실패의 책임 또한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절차를 무시하고 부실 예측을 방치한 결정권자들에 대한 명확한 문책이 동반돼야만 향후 유사한 정책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제주~칭다오 항로 잔혹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아무리 명분이 좋은 국제화 정책이라도 치밀한 수요 분석과 투명한 행정 절차라는 기본을 잃으면 결국 도민의 짐이 될 뿐이라는 사실이다. 제주 도정은 이번 사태를 뼈저린 교훈 삼아, 공공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책임 행정의 자세로 전면 혁신해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숨은 불씨, 안전한 난방기구 사용이 답이다



김 영 길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겨울은 계절적 특성상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이다. 난방기구는 우리에게 따뜻하고 안락한 겨울을 선사하지만,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화재 사고로 이어지기도 해 주의가 요구된다.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 화재의 상당수가 전열기구 사용 부주의와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사용 전 철저한 사전 점검이다. 오랜 기간 보관해 뒀던 난방기구를 사용하기 전 전선이 헐거워지거나 벗겨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먼지가 쌓인 콘센트는 과열과 합선의 주원인이 되므로 깨끗이 털어내고 사용해야 한다. 특히 전력 소모가 큰 난방기구는 멀티탭에 문어발식으로 꽂아 쓰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벽면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용 중인 전열기구의 주변 환경 관리도 중요하다. 전기히터 주변에는 커튼이나 이불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아야 한다. 전기장판은 접어서 보관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리면 내부 열선이 끊어져 화재를 유발하므로 둥글게 말아서 보관해야 한다. 특히 열을 잘 축적하는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장판을 켜두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화재예방은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된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설마' 하는 안일함을 버리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때,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돌봄이 필요한 순간, 제주가치돌봄이 곁에 있다



배 연 미
서귀포시 안덕면 주무관

누구나 혼자 힘으로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수 있다. 질병이나 사고, 가족의 부재, 고령 등 이유도 다양하다. 문제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 몰라 제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돌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제도가 제주가치돌봄이다. 기존 제도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도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일상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제주형 돌봄 체계다.

돌봄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식사나 집안일이 힘들거나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처럼 일상 속 작은 어려움에서 시작된다. 불편을 방치하면 건강 악화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때 도움을 연결해야 한다.

읍·면·동은 주민 가까이에서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확인해 지원으로 연결한다. 한 번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활을 살피며 복지·보건·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주민도 있어 이웃과 가족, 마을의 관심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이웃을 읍·면·동에 알려주는 관심이 누군가의 일상을 지키는 시작이 된다.

돌봄의 사각지대는 서비스가 없는 곳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필요한 도움과 주민이 연결되지 못한 곳 역시 돌봄의 빈틈일 수 있다. 제주가치돌봄의 '가치'는 서로의 일상을 지켜주는 데 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누구나 안심하고 손을 내밀고, 필요한 돌봄이 생활 가까이에서 이어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